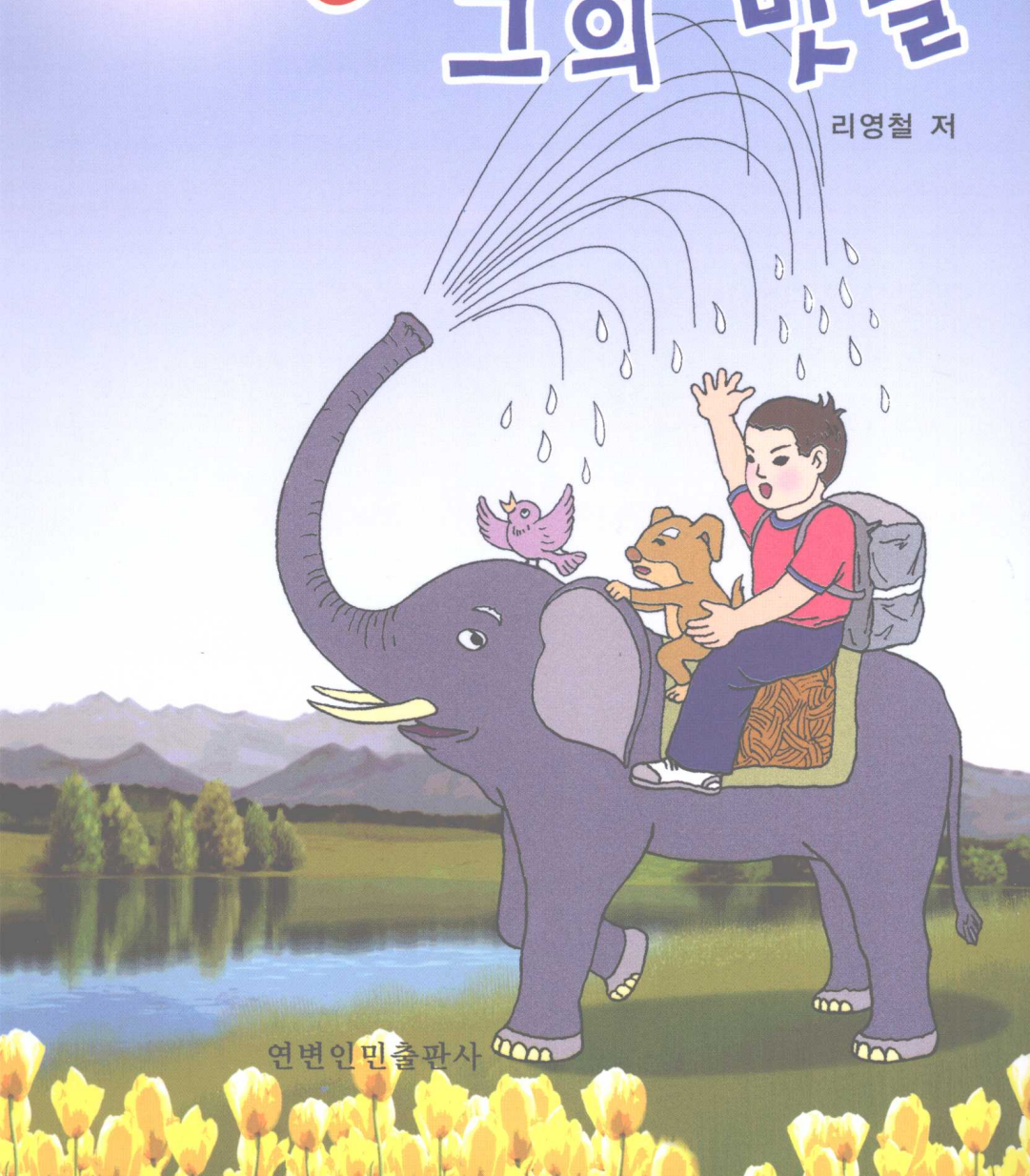


중편동화

용이와 그의 벗들

리영철 저



연변인민출판사

중편동화

송이와 그의 벚들

리영철 저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최동일
책임교정: 로은화
기술설계: 정선숙
삽 화: 박창우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小勇和他的朋友们: 朝鲜文 / 李永哲著.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9.5

ISBN 978-7-5449-0589-3

I. 小… II. 李… III. 童话-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87.7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9) 第068129号

小勇和他的朋友们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图们市日升印刷厂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6.5 字数: 130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589-3 (民文)

版次: 2009年5月第1版

2009年5月第1次印刷

印数: 800册

定价: 15.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머리글

세월이 류수 გადა더니 1980년에 첫 동화작품 “키다리원숭이의 교훈”을 《소년아동》에 발표해서부터 벌써 장장 30년간 동화와 씨름을 해왔습니다. 처음엔 아동소설도 쓰고 성인소설도 썼지만 나중엔 그래도 동화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점차 동화창작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나의 창작로정이 결코 순탄한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동화창작에서 새로운 진전이 없이 답보하는것으로 하여 고민할 때도 있었고 경제시대의 충격을 받아 주춤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이란 창작로정에 비하면 이렇게 방황한 시간은 그래도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동화창작은 이미 나에게 있어서 빠속까지 깊숙이 스며들인 취미생활로 되었습니다. 동화창작은 그래도 나에게 즐거움을 더 많이 안겨주었고 아름다운 추억을 더 많이 남겨주었습니다. 《쌍둥이 전기》 등 동화집들이 출판된후 나는 이런 책들을 친구들에게 주면서 “집의 아이에게 갖다 보ियो.” 하고 말하는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친구들이 나



를 보고 “우리 아이가 요즘 그 책을 보느라고 정신이 없소.” 하고 인사말삼아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나에게서는 커다란 위안과 힘으로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보이려고 쓴 글인데 아이들이 잘 보더라고 하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었습니다.

나는 동화창작에서 퍼그나 오래동안 기이하고 재미있는 동화이야기를 꾸미는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나이를 먹고 인생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면서 요즘엔 미스박사계열동화, 기기박사와 토토 계열동화 등 동화작품들에서 동화이야기에 철리성을 많이 부여하기 위해 모지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쓴 《용이와 그의 벗들》에서는 현실생활의 뽕진성과 동화의 특성이 잘 어울리게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지금은 무협동화 《무쇠주먹》을 쓰고있는중입니다.

환상과 과장, 상징은 동화의 날개입니다. 이런 날개가 더 크고 더 힘있게 퍼득일수록 동화창작에서 더 높이, 더 멀리 날수 있다고 봅니다.

반백이 넘도록 살면서 버리고 닦은 재간이 이것 밖에 없는것만큼 앞으로 어린이들을 위하여 열심히 동화를 쓰려 합니다.

이 책의 출판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 연변인민출판사 지도부와 동료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저자

2009년 3월 15일



섬나라입니다.

도시엔 현대식고층건물들이 우뚝우뚝 일떠서고
농촌엔 푸르른 오곡물결이 설레이고 산엔 키높이 자
란 백년수림이 무성하고 넓게넓게 둘레를 잡은 사면
바다에선 검푸른 파도가 출렁이는 아름다운 섬나라입
니다.

바로 이 섬나라의 벽지마을인 벽수촌의 벽수소학
교 4학년에 용이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나이에 비해 키가 크고 몸집이 우람진 용이는 이
날 신경을 써가며 안성맞춤한 시간에 학교에 이르렀
습니다. 지은지 오랜 교사는 펍 혈망했습니다.

용이가 교실에 들어서니 마침 수업시간을 좀 앞
둔 때라 아이들이 모두 제자리에 앉아있었습니다. 상
체를 흔들거리며 뒤쪽에 자리 잡은 자기 책상으로 간
용이는 책가방을 벗어서 책상우에 놓았습니다. “컹”
하고 헛기침을 한 용이는 책가방속에서 필통을 꺼내



여 책상우에 놓았습니다. 남자애들의 눈길을 충분히 자극할만큼 변형금강그림이 희한하게 그려진 큼직하고 두터운 필통이었습니다. 용이는 주변아이들의 주의를 불러일으키려고 일부러 또다시 헛기침을 한후 필통밑층에 손바닥을 대고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러자 손바닥만큼한 유희기가 나타났습니다. 용이는 유희기의 푸른 단추를 꼭 눌렀습니다. 낮고 짙막한 멜로디가 울리면서 현상판이 밝아졌습니다. 메뉴에서 전투기격추프로그램을 선택한 용이는 곧 유희를 즐기 시작했습니다. 현상판에 전투기가 떠오를 때마다 용이는 날렵하게 버튼을 눌러 전투기를 격추했습니다. 실로 놀수록 신바람이 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동안 신나게 놀고난 용이는 필통을 책상우에 올려놓고 주위를 휘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자기 주위에 와락 몰켜들기를 바랐습니다.

“야-! 이 멋진 필통 어디서 샀어?”

“야-! 이 필통 정말 욕심나네!”

“나도 좀 놀아보자!”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며 왁작 떠들어대기를 바랐습니다. 자기를 보는 아이들의 눈길마다에 부러움이 그들먹이 고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예상과 정반대로 흘렀습니다. 모두들 수업전준비를 하느라고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눈길을 파는 아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 학급에 용이라는 존재가 없는듯이 말입니다.
용이는 저르기 심사가 탈렸습니다.

“애, 훈이야, 너 지금 뭘 하는거야?”

용이는 팬히 부르튼 소리로 옆에 앉은 훈이를 건드렸습니다.

“나 숙제로 한 작문이 제대로 됐는가 검사하는중이야.”

훈이는 용이에게로 눈길을 돌리지도 않은채 자기가 쓴 글을 열심히 보며 대꾸했습니다.

용이는 실망감이 크게 갈마들었습니다. 전날오후에 용이는 마을에서 제일 큰 종합상점으로 갔다가 새로 들여왔다는 유희기가 달린 큼직한 필통을 보고 자석에 끌리듯 마음이 끌렸습니다. 값을 적은 딱지를 보니 90원이었습니다. 꽤 비싼축이였지만 용이는 조금도 주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박한 몸을 흔들거리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용이가 집에 들어서니 그를 기다리고있던 애완견 점점이가 다리에 달라붙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인사말부터 오갈 그들이였지만 용이는 지금 그럴 새가 없었습니다. 그는 식모한테 알은체를 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모도 저녁차비때문에 용이한테 신경 쓸 새가 없었습니다. 용이는 책상우의 돼지저금통을 냉큼 들고 밑의 마개를 열었습니다. 1원짜리 쇠돈들이 와그르르 쏟아져나왔습니다. 용이는 쇠돈 90개를 세여 호주머니에 넣은



후 저금통의 마개를 닫고 나머지 돈을 도로 저금통안에 넣었습니다. 여느 애들 같으면 이만한 돈을 모으는것이 무척 힘든 일이겠지만 용이에게는 식은 죽먹기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쇠돈이 생기는데로 쓰지 않고 그의 저금통에 넣어주니 말입니다.

“너 급한 일이 있는 모양이구나.”

점점이가 바빠 서두는 용이를 보고 물었습니다.

“지금 아주 급해. 좀 후에 알게 될거야.”

용이는 건성으로 대꾸하고는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용이는 다시 종합상점으로 달려가 변형금강그림이 멋있게 그려진 필통을 골라 샀습니다.

다시 집에 들어선 용이는 병글거리며 점점이앞에 새로 산 필통을 내놓았습니다.

“야- 너 필통을 새로 샀구나!”

점점이가 환성을 지르며 앞밭로 필통을 쥐려 했습니다.

“안돼. 너 밭톱에 오리우면 큰일이야. 조심해야지.”

용이가 제격 필통을 뒤로 가져갔습니다.

“네 말이 옳아. 나 다치지 않고 눈으로 보기만 할게.”

점점이는 미처 궁리가 따라가지 못한 자기를 누우치며 앞밭을 내리웠습니다.

그제야 용이는 새 필통을 도로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는 낡은 필통속의것을 꺼내여 새 필통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필통을 점점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너 이거나 가져.”

용이가 낡은 필통을 점점이앞에 쑥 내밀었습니다.

“고맙다. 난 이거라도 만족이야. 네가 주는 콩알이 남을 때면 이속에 넣어두고 먹을테야.”

점점이는 낡은 필통이 차례진것도 좋은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용이는 필통밑에 달린 유희기를 밀어서 꺼낸후 유희를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던 점점이가 박수를 치며 흥분된 어조로 소리쳤습니다.

“짱! 용이 신났구나!”

흐뭇해난 용이는 왼쪽 호주머니에서 닳은 콩알을 하나 꺼내여 점점이한테 홀 던져주었습니다. 점점이는 입을 크게 벌려 날아오는 콩알을 넉적 받아서 꼬드득꼬드득 맛있게 씹어먹었습니다. 용이가 다시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콩알 여라문개를 꺼내주자 점점이는 그 콩알들을 낡은 필통에 제각 담았습니다.

이날 밤 용이는 잠을 설치면서 이튿날 학교에 가서 필통자랑을 할 일들을 하나하나 새겨보았습니다...



헌데 천만뜻밖에도 그의 행동이 전혀 아이들에게
먹히우지 않을줄이야.

용이는 슬그머니 부아가 치밀어올랐습니다.



첫번째 시간이 끝났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둘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용이는 펼쳐놓았던 교과서를 접어서 들다가 짐짓
옆에 있던 고무지우개를 툭 쳐놓아 바닥에 떨어뜨렸
습니다. 바퀴처럼 생긴 둥그란 고무지우개는 데굴데
굴 굴러서 훈이의 발밑으로 갔습니다. 그런줄도 모르
고 훈이는 훌쩍 일어나 몇발자국 앞으로 나갔습니다.

“훈이야!”

용이가 거친 소리로 불렀습니다.

훈이는 걸음을 멈추고 주춤 돌아섰습니다.

“나를 불렀니?”

콩나물처럼 호리호리하게 키만 큰 훈이는 두눈이
울퉁해서 용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너 책상밑을 못 봤니?”

용이가 아니꼬운 눈길로 훈이를 흘겨보았습니다.

“못 봤어.”

훈이는 주눅이 든 어조로 한마디 대꾸하며 긴 고개를 숙 빼들고 자기의 책상밑을 여겨보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기의 책상밑에 동그란 고무지우개가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훈이는 무슨 일이나싶어 용이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덜짱해서 서있긴! 빨리 줏지 않구!”

용이가 버럭 소리질렀습니다.

“야- 별거 다 시키면서...”

훈이가 자존심이 상하는듯 이마살을 찡그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채 맺기도전에 용이가 썩둑 잘라버렸습니다.

“무슨 말이 많아! 한 매 안겨달래?!”

용이가 이를 부드득 갈며 주먹을 불끈 틀어쥐었습니다.

훈이는 잠깐 망설이다가 앞으로 한발자국 내디뎠습니다. 이때 훈이앞에 앉은 칠이가 벌떡 일어서며 그의 앞으로 손을 쑥 내밀었습니다. 훈이는 다시 제자리에 똑 멈춰섰습니다. 훈이는 칠이와 용이를 엿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감실감실하게 생긴 칠이는 입을 꼭 다문채 훈이를 보고 밖으로 나가라고 눈짓했습니다. 훈이는 잠간



머뭇거리다가 꺾 돌아서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네가 감히 내 일에 빠져?!)

용이는 감히 겉으로 내비치지 못하고 속으로 시
부렁거리며 칠이를 쏘아보았습니다.

칠이도 똑 버티고 선채 용이를 매섭게 노려보았
습니다.

둘은 마주선채 거친 숨을 쉰씩 몰아쉬었습니다.
당금 불이 붙을듯 분위기가 긴장했습니다.

이때 두번째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따르릉 울
렸습니다.

용이는 별수없이 허리를 굽혀 훈이 책상밑의 고
무지우개를 주어서 필통에 담은후 썻하니 교실을 나
섰습니다.

칠이도 뒤따라 교실을 나섰습니다.



두번째 시간은 체육시간이었습니다. 여자애들은
운동장 구석쪼에서 배구를 치고 남자애들은 운동장

한가운데서 두 팀으로 나뉘어 공을 찼습니다.

땀을 철철 흘리며 뛰어다니는 용이는 왼쪽변선에 서서 자기에게 공을 보내달라고 손을 들고

“여기! 여기!”

하고 연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오래도록 그한테로 공을 보내주는 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왼쪽변선은 대방팀 수비가 홀시하는 안전구역으로 되었습니다.



갑자기 용이네 팀의 문지기가 힘껏 걷어찬 공이 포물선을 그으며 용이한테로 날아왔습니다. 용이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수 없었습니다. 그는 날아오는 공을 먼바로 받아세웠습니다. 앞을 내다보니 공백이였습니다. 몇몇 수비들이 모두 저쪽에 몰려서있었습니다. 용이는 실직한 몸을 흔들거리며 공을 몰고 앞으로 질주했습니다. 대방팀 문대와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공을 알맞춤한 거리까지 몰고 들어간 용이가 곧 대방팀 문대를 향해 슛하려 할 찰나였습니다. 대방팀의 수비인 민이가 약삭바르게도 어느 순간에 달려와 먼저 공을 변선틈스로 내쳤습니다. 헛다리질을 한 용이는 또 뺨이 꼬이였습니다.

“멋있게 슛하려 했는데 너 정말 재수없이 노는구나.”

용이가 혈떡거리며 민이를 아니꼽게 쏘아보았습니다.

“난 수비야. 대방팀의 진공을 막는 수비란 말이다. 내가 너의 진공을 막는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데 뭐 재수구 뭐구 있니.”

키가 작아도 입이 여문 민이가 런주포를 내쏘았습니다.

“요 밥알 같은게 까분다. 어째 혼나고싶니?”

용이가 주먹으로 민이의 가슴을 치려 했습니다.

헌데 이때 꽤 힘이 센 손아귀가 용이의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돌아다보니 칠이였습니다.

“너 왜 이렇게 싱겁니?”



용이는 더는 참지 못하고 잡힌 팔을 확 나꾸어채며 거칠게 말했습니다.

“내가 싱거운게 아니야. 네가 너무 우쭐거리!”

칠이가 힘있게 내뱉었습니다.

“너 뭐라니? 감히 누굴 보고 그따위 말을 하는거니!”

용이가 실박한 목에 피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왜? 바른말도 못하니? 너 똑똑하게 놀아라!”

칠이도 용이를 지름띠보며 어성을 높였습니다.

이때 심판을 서던 체육선생님이 다가와 그들 둘을 갈라놓았습니다.



하루수업이 끝났습니다.

책가방을 메고 교실을 나선 용이는 운동장을 지나 정문을 나섰습니다.

용이가 집으로 가려면 응당 오른쪽 길로 꺾어들



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용이는 오른쪽 길에 접어들지 않고 왼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민이가 앞에서 걸어가 고있었습니다. 민이의 어머니가 오늘은 외할머니 생신날이니 저녁에 함께 외할머니네 집으로 가자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이는 아이들을 기다릴 새도 없이 혼자서 급히 집으로 돌아가고있었던것입니다.

용이는 감때사납게 입을 실룩거리더니 실직한 몸을 흔들거리며 그쪽으로 썩썩 걸음을 다그쳤습니다.

“야, 거기 서!”

용이가 민이의 등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민이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용이는 어느결에 민이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야! 너 왜 아까 나를 망신시켰어!”

용이의 소리는 처음부터 거칠었습니다.

“나 너를 망신시킨게 없어.”

키 작은 민이가 울롱한 눈길로 용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딴전을 부리지 마. 다른 애면 몰라도 내가 공을 몰고 들어갈 때 너 막지 말아야 했어. 숫하게 내버려둬야 했어. 그런데 넌 공을 차버렸어. 그래서 난 술한 애들앞에서 헛다리질하구. 그래 이게 나를 망신시킨게 아니야?”

용이가 손사래를 해가며 어성을 높였습니다.